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SIBELIUS

KULLERVO
KOREAN PREMIERE

핀란드 전설의 영웅 '쿨레르보'의 이야기
그 찬란한 국내 초연 무대

KBS교향악단 제783회 정기연주회

주최/주관 KBS 교향악단

후원 KRX 한국거래소 | 더클래스효성

2022.10.28.(Fri)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22.10.29.(Sat) 17:00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KBS교향악단 제783회 정기연주회
Kullervo - Korean Premiere

지휘 | 피에타리 잉키넨 Pietari Inkinen
소프라노 | 요한나 루사넨-카르타노 Johanna Rusanen-Kartano
바리톤 | 톰미 하칼라 Tommi Hakala
남성연합합창단 | 핀란드 YL남성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2022.10.28.(FRI)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22.10.29.(SAT) 17:00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PROGRAM

시벨리우스 | 전설, 작품9
J. Sibelius | En Saga, Op.9

🕒 20'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시벨리우스 | 쿨레르보, 작품7 (한국 초연)
J. Sibelius | Kullervo, Op.7 (Korean Premiere)

🕒 72'

I. 서주 (13')

Introduction

II. 쿨레르보의 젊은 시절 (14')

Kullervo's Youth

III. 쿨레르보와 그의 누이 (24')

Kullervo and His Sister

IV. 출정하는 쿨레르보 (11')

Kullervo Goes to War

V. 쿨레르보의 죽음 (10')

Kullervo's Death



©Andreas Zihler

Pietari Inkinen, Conductor

지휘 | 피에타리 잉키넨

“자연스러운 음악성으로부터 나오는 매력적인 사운드” - <그라모폰> 지

피에타리 잉키넨은 KBS교향악단의 제9대 음악감독으로 2022년부터 KBS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다. 잉키넨 음악감독은 핀란드 출신으로 2017년부터 도이치 방송 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를 역임하고 있으며, 최근 2025년 6월까지로 임기를 연장하였다. 2016년부터는 재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를 겸임하고 있다.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관현악단,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유명 오케스트라들을 지휘한 바 있다.

그는 2021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발퀴레>를 지휘한 바그너 스페셜리스트이기도 하다. 앞서 호주 멜버른 오페라 하우스에서 <니벨룽의 반지> 4부작 전막 공연을 성황리에 지휘한 그는 이 공연으로 2014년 헬프만 어워드와 2016년 그린 룸 어워드에서 최고의 오페라 지휘자 상을 수상하였다. 그 외에도 핀란드 국립 오페라, 드레스덴 젼퍼오퍼, 팔레르모 마시모 극장, 라 모네 극장,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 뮌헨 국립 극장 등에서 다양한 오페라 작품을 선보였다.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재임할 당시 시벨리우스의 교향곡들과 핀란드 작곡가 라우타바라의 교향곡 3부작 연주 음반을 지휘하기도 했다. 그의 지휘 아래 테너 사이먼 오닐과 함께한 바그너의 아리아들과 관현악곡 앨범, 요하네스 모저와 함께한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제1번과 브리튼의 첼로 교향곡 음반도 주목할 만하다. 도이치 방송 교향악단의 바그너의 지그프리트 발취곡, 프로코피예프와 드보르작의 교향곡 음반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실력파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한 피에타리 잉키넨 감독은 필른 음악원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자카르 브론을 사사하고, 이후 헬싱키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에서 지휘를 수학하였다.



Johanna Rusanen-Kartano, Soprano

소프라노 | 요한나 루사넨-카르타노

소프라노 요한나 루사넨-카르타노는 핀란드의 유명 바그너 소프라노 아니타 벨키(Anita Välikki)의 지도하에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베를린 및 빈에서 학업을 마친 후, 2년간 베를린 도이체 오페라에서 '젊은 예술가 프로그램'의 멤버로 활동하며 동시대 가장 뛰어난 핀란드 소프라노로 자리매김했다.

2012년 3월 핀란드 탐페레 오페라에서 <탄호이저>의 '베누스' 역으로 데뷔한 그는 이후 핀란드 국립 오페라, 토리노 왕립 극장, 사본린나 오페라 페스티벌, 리우데자네이루 시립극장, 툴루즈 카피톨 극장 등 세계 각지를 순회하며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했다.

<에브게니 오네긴>의 '타티아나', <보체크>의 '마리', <가면무도회>의 '아멜리아', <돈 조반니>의 '돈나 엘비라'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청중들을 만난 그는 최근 <마지막 유혹>, <마부>, <늑대의 신부> 등 핀란드 오페라 작품들에서 강인한 여성 역할을 소화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오늘 연주되는 시벨리우스 <쿨레르보>의 솔로 소프라노 파트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로 손꼽히며, 2015년 BBC 프롬스에서 사카리 오라모가 지휘한 <쿨레르보>의 실황 음반은 BBC 뮤직에서 발매되기도 했다. <폴란드 레퀴엠>의 연주에 참여한 'Penderecki Conducts Penderecki' 음반(2016년 발매)은 이듬해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Timo Mokka

Tommi Hakala, Baritone

바리톤 | 톰미 하칼라

핀란드 출신으로 시벨리우스 아카데미를 졸업한 바리톤 톰미 하칼라는 2003년 BBC 카디프 어워드에서 '올해를 빛낸 성악가 상'을 수상했으며, 2001년 메리칸토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998년 뉘른베르크 오페라에서 최연소 주역으로 데뷔 후, 2001년부터 라이프치히 오페라에서 활동하며 <탄호이저>의 '볼프람', <라 트라비아타>의 '제르몽', <피가로의 결혼>의 '알마비바 백작' 등의 배역을 성공적으로 소화했다. 2008년부터는 핀란드 국립 오페라에서 <파르지팔>의 '암포르타스',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쿠르베날', <카르멘>의 '에스카미요' 등의 배역을 맡으며 레퍼토리를 확장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드레스덴 국립 오페라, 토리노 왕립 극장 등 유수의 오페라 극장에 초청받아 열연을 펼쳤으며, 에사-페카 살로넨, 유카-페카 사라스테, 오스모 벤스케, 오코 카무, 사카리 오라모, 수잔나 멜키 등의 핀란드 지휘자들을 비롯해 얀 판 츠베덴, 사이먼 래틀 경, 콜린 데이비스 경, 마리스 안손스 등 저명한 지휘자들과 호흡을 맞췄다. 레이프 세계스탐의 지휘로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시벨리우스의 <쿨레르보> 음반은 2008년 디아파종 황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2/23 시즌에는 슈투트가르트 오페라 극장에서 열리는 <지크프리트> 새 프로덕션에 '방랑자' 역을 맡아 무대에 오르며, 이외에도 <발퀴레>의 '보탄' 등으로 청중들을 만날 예정이다.



YL남성합창단 YL Male Voice Choir

상임지휘자 Pasi Hyökki

135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YL남성합창단은 1883년 ‘헬싱키 대학 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창단되어 ‘핀란드어를 기반으로 하는 가장 오래된 합창단’, ‘핀란드를 대표하는 남성합창단’ 등의 수식어로 널리 알려졌다. 시벨리우스가 남긴 상당수의 남성 합창곡들이 YL남성합창단의 의뢰를 받아 작곡된 것이다. 자국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핀란드 클래식 문화의 대표주자로서 전 세계를 순회하며 남성 합창의 매력을 전파한 바 있다. YL남성합창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품질의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다.



고양시립합창단 Goyang Civic Choir

상임지휘자 이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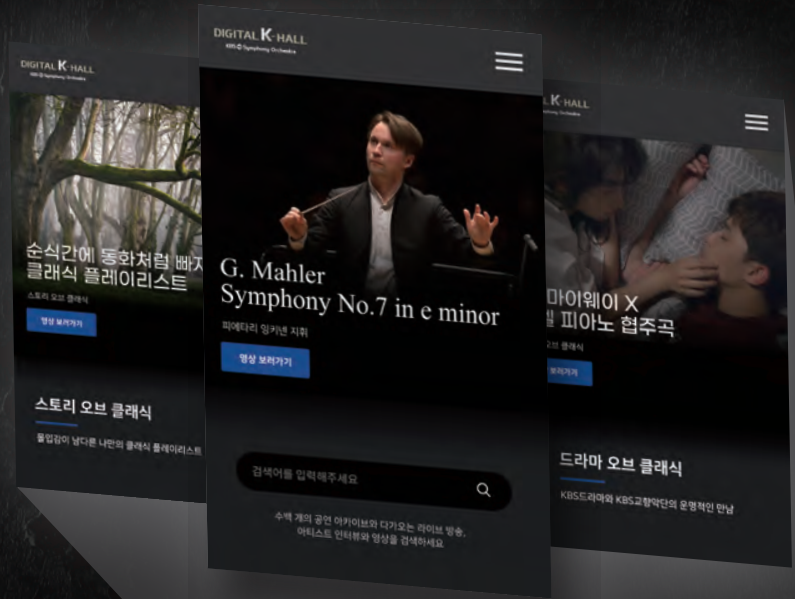
뛰어난 기량과 윤택한 하모니를 자랑하는 고양시립합창단은 2003년 11월 25일에 창단되었다.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연 80여회에 이르는 공연일정을 소화해 내며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고양시의 문화아이코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3년 작곡가 올라 야일로(Ola Gjeilo)의 <Dark Night of the Soul>을 한국 초연하며 국내 합창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2016년 독일과 프랑스에서 열린 ‘자르브뤼켄 음악축제’와 ‘라 세즈-디의 음악축제’에 초청되어 국제무대에서 수준 높은 기량을 선보이기도 했다.



안양시립합창단 Anyang Civic Chorale

상임지휘자 이충한

안양시립합창단은 1987년 창단되어 120여회의 정기·기획공연, 그리고 유수의 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교전에서 현대음악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가곡, 성가, 팝송 등을 담은 9장의 음반을 제작하였으며, 특히 2013년 정명훈의 지휘로 서울시향과 함께한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이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발매되기도 했다. 2014년 제10회 세계합창심포지엄에 초청받아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을 무대에 올리는 등 한국 합창의 우수성을 알려오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클래식하게

KBS교향악단 '디지털 K-Hall' 오픈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온라인 콘서트홀
곡목·연주자·작곡가별 검색기능을 통해 편리하고 빠른 감상 가능

콘서트

KBS교향악단의 다채로운 공연 실황 영상

플레이리스트

상황별 맞춤 음악을 제공하는 클래식 플레이리스트

클래식 스토리

연주자가 직접 들려주는 생생한 공연 해설 영상

KBSSO 스토리

KBS교향악단이 들려주는 못다한 공연 뒷이야기

디지털 K-Hall
바로가기



Program

Note

시벨리우스 | 전설, 작품9

J. Sibelius | En Saga, Op.9

작곡연도	1892년 / 1902년
초연	1893년 2월 16일 핀란드 헬싱키 (original ver.) 1902년 11월 2일 핀란드 헬싱키 (revised ver.)
편성	플루트2(피콜로 겸함),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3, 트롬본3, 튜바, 심벌즈, 트라이앵글, 큰북, 현5부
연주시간	약 20분

이 작품의 원제에 등장하는 ‘사가(Saga)’란 중세 북유럽, 그중에서도 주로 아이슬란드의 전승문학을 지칭하는 용어로 그 내용은 대개 영웅이나 군주에 관한 전설 또는 신화이다.

시벨리우스가 이 교향시를 작곡한 것은 1892년 여름이었다. 그는 그해 봄 헬싱키에서 초연된 ‘쿨레르보’를 통해 핀란드 음악계의 기린아로 급부상했고, 그를 주목한 지휘자 로베르트 카야누스의 의뢰를 받아들여 ‘핀란드 신화와 전설의 분위기’를 담은 작은 관현악곡을 쓰기로 했다. 이 직후 아이노 예르네펠트와 결혼하게 되면서 ‘작은 관현악곡’의 작곡은 신혼여행지였던 카렐리아 지방의 호숫가에서 진행되었다. 그곳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은 그는 당초 계획과 달리 연주시간 20여분에 달하는 장대한 교향시를 탄생시키게 된다. 훗날 그는 작품의 근원이 빈 유학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 곡이 건강문제와 재정난, 무분별한 유희 등으로 고심하고 방황했던 자신의 젊은 날의 초상과도 같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작품은 1893년 2월 헬싱키에서 시벨리우스 자신의 지휘로 초연되었으나 그리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나중에 그는 주위의 권유를 받아들여 작품을 개정했는데, 원작에 비해 길이가 단축되면서 보다 ‘세련되고 말끔하게’ 다듬어진 이 개정판은 1902년 11월 헬싱키에서 카야누스의 지휘로 초연되어 성공을 거두었다. 오늘날 통용되는 판본은 바로 이 개정판이다.

모데라토 아사이(매우 적당한 빠르기)로 출발하는 도입부는 북유럽의 정경을 환기하는 듯한 아련한 분위기로부터 호른과 바순 등의 관악기들이 떠오르며 앞으로 나타날 주요 소재들을 암시한다. 계속해서 트럼펫과 바순에 이어 호른과 첼로가 제1주제를 단계적으로 부각시키고, 알레그로(빠르게)로 진입하면서부터 곡의 흐름은 상승세에 접어든다. 도입부에서 나타났던 리드미컬한 동기를 활용한 경과부를 지나면, 이윽고 영웅적 기상이 서린 제2주제가 힘차게 등장한다. 이후 음악은 다채롭고 현란한 전개를 보이며 등락을 거듭하다 곡의 중간 지점을 지나면서 차츰 가라앉는다. 곡의 후반부는 렌토(느리게)의 차분한 템포 속에서 4성부로 나뉜 바이올린과 비올라 솔로, 호른이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되지만, 이내 폭풍우처럼 격렬하게 휘몰아치며 절정으로 치달는다. 종결부에서는 클라리넷이 마치 음유시인의 회상처럼 제1주제를 길게 늘어 노래한 뒤 첼로가 선율을 이어받아 연주하며 조용히 마무리된다.

시벨리우스 | 쿨레르보, 작품7

J. Sibelius | Kullervo, Op.7

작곡연도	1891-1892년
초연	1892년 4월 28일 핀란드 헬싱키
편성	솔로 소프라노, 솔로 바리톤, 남성합창단 플루트2, 피콜로, 오보에2,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2(베이스 클라리넷 겸함), 바순2, 호른4, 트럼펫3, 트롬본3, 튜바, 팀파니, 심벌즈, 서스펜디드 심벌, 트라이앵글, 현5부
연주시간	약 72분

베토벤, 베를리오즈, 리스트 등에게서 선례를 찾아볼 수 있는 ‘칸타타 심포니’ 형식을 취한 이 독특하고 장엄한 대작은 ‘핀란드의 국민 작곡가’로 일컬어지는 시벨리우스가 민족주의자로서 내딛은 첫걸음이었다. 그는 이 작품을 쓰면서 핀란드의 민족 설화 <칼레발라>에서 소재를 취했고, 핀란드 언어와 시가, 민요 등을 연구하여 ‘그 선율적이고, 이상하게 우울한 단조로움’의 특성을 자신의 음악적 스타일의 일부로 흡수했다. 1892년 4월 28일 헬싱키 대학에서 진행된 이 작품의 초연에서는 핀란드 역사상 최초로 관객들에게 핀란드어 대본이 배부되었고, 커튼콜에서는 헬싱키 오케스트라 협회의 설립자 로베르트 카야누스가 시벨리우스에게 월계관을 수여하는 상징적인 장면도 연출되었다.

이 뜻깊은 작품의 연원은 시벨리우스의 유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889년 헬싱키 음악원을 졸업한 직후 정부 장학금을 받아 베를린으로 유학을 떠난 시벨리우스는 그곳에서 자신의 예술적 지향점을 바꿔놓을 공연과 조우하게 된다. 바로 핀란드가 낳은 국제적 지휘자이자 작곡가 로베르트 카야누스가 자신의 교향시 ‘아이노(Aino)’를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의 콘서트였다. 이전까지 그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음악 선진국들만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 공연을 계기로 조국 핀란드의 전승문화에 기초한 창작의 가능성에 눈뜨게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빈으로 유학지를 옮긴 그는 카야누스처럼 <칼레발라>에 기초한 대작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중산층 집안 출신이었던 그는 미숙했던 핀란드어 공부에 매진하며 <칼레발라>를 탐독했고, 교향곡 작곡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는 일에도 열을 올렸다. 아울러 빈 무지크페어아인에서 실연으로 접한 브루크너의 교향곡 제3번과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에서도 큰 영향을 받았다.

그가 선택한 소재는 <칼레발라>에 등장하는 세 명의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인 ‘비운의 영웅 쿨레르보’의 전설이었다. 쿨레르보는 칼레바 지방에 사는 어느 부족의 추장 칼레르보의 아들로, 칼레르보는 사악한 동생 운타모의 전사들에게 일족이 몰살되는 참변을 당한다. 그 학살의 틈바구니에서 태어난 쿨레르보는 삼촌이자 원수인 운타모의 영지에서 성장한다.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쿨레르보’는 이 비극적 영웅의 일생을 총 다섯 부분에 걸쳐 서술하는데, 이 중 세 악장은 관현악곡으로, 두 악장은 성악이 부가된 칸타타로 이루어져 있다.

Program

Note

I. 서주 Introduction

고전적인 교향곡의 첫 악장에 흔히 적용되는 소나타 형식을 응용했다. 물결치는 듯한 현악기들의 반주 위에서 클라리넷과 호른의 합주로 제시되는 제1주제는 쿨레르보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 이후 소강 국면에서 호른의 나직한 울림으로 제시되는 제2주제 또한 주인공의 고뇌와 비애를 드러내는 듯하다. 이후부터는 이 두 주제를 바탕으로 때로는 고전 교향곡풍으로, 때로는 자유로운 환상곡풍으로 전개되는데, 그 과정에서 핀란드 고대 시가의 낭창법과 브루크너 교향곡풍의 울림도 느낄 수 있다. 재현부에서 오보에가 이끄는 목관부에 이어 저현부로부터 떠오르는 제1주제는 작품 전반을 지배하는 음산하고 불길한 분위기를 한층 부각하며, 이후 그 비극적 색채가 더욱 강화되며 정점으로 치닫는다.

II. 쿨레르보의 젊은 시절 Kullervo's Youth

고전적인 교향곡의 느린 악장에 해당하며 대략 A-B-A'-B'-A"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주부(A)는 운화하면서도 어딘지 불안한 '자장가의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중간부(B)는 핀란드의 아름다운 전원을 환기하는 목가풍을 띠고 있다. 이 곡의 자장가 부분은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상징하는데, 전설에 따르면 쿨레르보는 요람에서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정신적 결함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 요람을 흔들어낸 건 마법의 힘을 갖고 태어난 아기 쿨레르보 자신이었고, 그는 일찍부터 칼레르보 일족의 복수를 다짐하며 통제 불능의 난폭하고 잔악한 소년으로 자라난다. 그래서인지 이 악장의 주부는 반복될수록 격렬하게 요동치는 방향으로 변주된다. 한편, 목가풍의 전원을 그려낸 대목은 쿨레르보가 대장장이 일마리넨에게 팔려간 후 목동으로 지내던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III. 쿨레르보와 그의 누이 Kullervo and His Sister

가장 긴 연주시간을 가진 장대한 대목으로, 솔로 소프라노와 바리톤, 그리고 합창단이 가세하여 비극적 사건의 전말을 노래한다. 라플란드에서 죽은 줄 알았던 부모와 상봉한 쿨레르보는 아버지의 명을 받고 공물을 바치러 다녀오는 길에 마주친 세 명의 여인을 유혹한다. 처음 두 여인에게서 조롱받고 외면당한 그였지만, 끝내 세 번째 여인을 자신의 썰매에 태우고 금은보화로 회유하여 '즐거운 밤'을 보내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새벽에 나는 대화를 통해 그녀가 수년 전 숲에서 실종되었던 그의 누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를 알게된 여인은 썰매에서 뛰어내려 폭포에 몸을 던지고, 쿨레르보는 죄책감과 서러움에 울부짖으며 한탄한다. 남성 합창이 유니슨으로 줄거리를 전달하는 가운데 바리톤이 쿨레르보로, 소프라노가 그의 누이로 분하여 그들의 대화와 탄식을 재연한다.

IV. 출정하는 쿨레르보 Kullervo Goes to War

스케르초 악장에 해당하며, 전장으로 향하는 쿨레르보의 비장하고 용맹스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누이를 범하고 죽게 만든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는 전장에서 죽기로 결심하고, 칼레르보 일족의 원수이자 자신을 엉망으로 양육한 삼촌 운타모에게 복수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서 북쪽의 포올라 지방으로 향한다. 그리고 마법과 무력을 이용해 운타모 일족을 몰살하고 마을을 불살라 버린다.

V. 쿨레르보의 죽음 Kullervo's Death

그러나 개선하는 쿨레르보를 맞으러 나올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복수를 치르는 사이 그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귀향하여 텅 빈 집과 황량한 숲을 마주한 그는 허탈감에 젖어 총견 한 마리를 데리고 숲과 들판을 방황한다. 그러다 문제의 누이와 마주쳤던 산꼭대기에 이르자 칼 위로 몸을 던져 비극적인 생을 스스로 마감한다.

관현악과 합창이 어우러진 음악은 쿨레르보의 마지막 여정을 진지하고 슬픈 어조로 따라가다가 그가 자결하는 장면에서 격정적으로 고조된 후 연민에 찬 선율로 이어진다. 이윽고 종결부에 이르면 격렬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금관악기가 곡의 첫머리에 등장했던 ‘운명의 주제’를 장렬하게 부각하며, 장장 70여 분에 걸친 비극이 막을 내린다.

시벨리우스가 직접 지휘한 헬싱키 대학에서의 초연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작품의 약점을 지적했고, 네 차례의 추가 공연을 거치는 동안 반응은 점점 더 냉담해졌다. 이듬해 3월에 작곡가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작품을 거두어들었고, 이후 죽을 때까지 작품 전체의 재공연을 불허했다. 결국 20세기 첫 공연은 그의 사후인 1958년에야 성사되었다. 한동안 논란에 시달리던 이 작품은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음반들이 녹음되며 재평가되었고, 근래에는 시벨리우스 고유의 울림과 음울한 색조, 향기로운 토속적 선율을 지닌 걸작으로 인정받으며 세계 각지에서 연주되고 있다.

글 | 황장원 (음악 칼럼니스트)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오늘 공연에 대한 지휘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음악감독 피에타리 잉키넨이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KBS교향악단



I. Johdanto

II. Kullervon nuoruus

III. Kullervo ja hänen sisarensa

Kuoro

Kullervo, Kalervon poika,
sinisukka äijön lapsi,
hivus keltainen, korea,
kengän kauto kaunokainen,
läksi viemähän vetoja,
maajyviä maksamahan.

Vietyä vetoperänsä,
maajyväset maksettua,
rekehensä reutoaikse,
kohennaikse korjahansa,
alkoi kulkea kotihin,
matkata omille maille.

Ajoa järyttelevi,
matkoansa mittelevi
noilla Väinön kankahilla,
ammoin raatuilla ahoilla.

Neiti vastahan tulevi,
hivus kulta hiihtelevi
noilla Väinön kankahilla,
ammoin raatuilla ahoilla.

Kullervo, Kalervon poika,
jo tuossa piättelevi;
alkoi neittä haastatella,
haastatella, houkutella:

Kullervo

Nouse, neito, korjahani,
taaksi maata taljoilleni!

Kullervon Sisar

Surma sulle korjahasi,
tauti taaksi taljoillesi!

I. 서주

II. 콜레르보의 젊은 시절

III. 콜레르보와 그의 누이

합창단

칼레르보 가문의 청년 콜레르보,
푸른 양말과 고급 가죽 신발을 신고
고운 금발 머리를 휘날리며
세금을 내려 길을 떠나네.
토지 사용료를 내려 길을 떠나네.

세금을 내고
토지 사용료를 내고
썰매에 올라타네.
썰매를 타고 집으로 향하네.
조국으로 향하네.

달캉거리는 썰매를 타고
배이뇌의 황야를 지나
숲 속 빈터를 지나
달려 나가네.

금발머리 여인을 만났네.
배이뇌의 황야를 지나
숲 속 빈터를 지나
여인을 만났네.

칼레르보 가문의 청년 콜레르보,
썰매를 세우고
여인에게 말을 거네.
여인을 유혹하네.

콜레르보

오 여인이여, 썰매를 타지 않겠소?
이 편안한 털가죽에 한 번 앉아보지 않겠소!

여인

썰매로 죽음이 들어가리라
털가죽에 질병이 깃들리라!

Kuoro

Kullervo, Kalervon poika,
sinisukka äijön lapsi,
iski virkkua vitsalla,
helähytti helmivyöllä.
Virkku juoksi, matka joutui,
tie vieri, reki rasasi.

Neiti vastahan tulevi,
kautokenkä kaaloavi
slevällä meren selällä,
ulapalla aukealla.

Kullervo, Kalervon poika,
hevoista päättelevi,
suutansa sovittelevi,
sanojansa säätelevi:

Kullervo

Tule korjahan korea,
maan valio, matkoihini!

Sisar

Tuoni sulle korjahasi
Manalainen matkoihisi!

Kuoro

Kullervo, Kalervon poika,
sinisukka äijön lapsi,
iski virkkua vitsalla,
helähytti helmivyöllä
Virkku juoksi, matka joutui,
reki vieri, tie lyheni.

Neiti vastahan tulevi,
tinarinta riooavi,
noilla Pohjan kankahilla,
Lapin laajoilla rajoilla.
Kullervo, Kalervon poika,
hevostansa hillitsevi,
suutansa sovittelevi,
sanojansa säätelevi:

Kullervo

Käy neito, rekoscheni,
armas, alle vilttieni,
syömähän omeniani,
puremahan päähkeniä!

합창단

푸른 양말을 신은,
칼레르보 가문의 청년 쿨레르보,
말을 채찍질하네.
구슬 달린 벨트로 말을 내려치네.
말이 앞발을 들며 달려가네.
썰매를 끌고 길을 가로질러 가네.

여인을 만났네.
가족 구두를 신고 길을 걷고
넓은 호수와 탁 트인 수면을
가로지르는 여인을 만났네.

칼레르보 가문의 청년 쿨레르보,
썰매를 세우고
여인에게 말을 거네.
여인을 유혹하네.

쿨레르보

오 여인이여, 썰매를 타지 않겠소?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지 않겠소!

여인

썰매로 투오니¹⁾가 들어가리라.
마날라이넨²⁾이 여행을 함께 하리라!

합창단

푸른 양말을 신은,
칼레르보 가문의 청년 쿨레르보,
말을 채찍질하네.
구슬 달린 벨트로 말을 내려치네.
말이 앞발을 들며 달려가네.
썰매를 끌고 길을 가로질러 가네.

여인을 만났네.
가슴에 양철 브로치를 차고
북쪽 산야의 천을 걸치고
넓은 라플란드로 향하는 여인을 만났네.
칼레르보 가문의 청년 쿨레르보,
썰매를 세우고
여인에게 말을 거네.
여인을 유혹하네.

쿨레르보

오 여인이여, 썰매를 타지 않겠소?
부드러운 털가죽에 앉아
사과와 견과를 먹지 않겠소!

¹⁾ 투오니(Tuoni): 핀란드 신화에서 지하세계의 신이자 어둠의 의인화

²⁾ 마날라(Manala): 핀란드 신화에서 사람이 죽은 후 가는 곳

Sisar

Sylen, kehno, kelkkahasi,
retkale, rekosehesi!
Vilu on olla viltin alla,
kolkko korjassa eleä.

Kuoro

Kullervo, Kalervon poika,
sinisukka äijön lapsi,
koppoi neion korjahansa,
reualti rekosehensa,
asetteli taljoillensa,
alle viltin vieretteli.

Sisar

Päästä pois minua tästä,
laske lasta vallallensa,
kunnotointa kuulemasta,
pahalaista palvomasta,
tahi potkin pohjan puhki,
levittelen liistehesi,
korjasi pilastehiksi,
Rämäksi re'en retukan!

Kuoro

Kullervo, Kalervon poika,
sinisukka äijön lapsi,
aukaisu rchaisen arkun,
kimahutti kirjakannen,
näytteli hopeitansa
verkaliuskoja levitti,
kultasuuta sukkasia,
voitönsä hopeapäitä.

Verat veivät neien mielen,
raha muutti morsiamen,
hopea hukuttelevi,
kulta kuihauttelevi.

Sisar

Mist'olet sinä sukuisin,
kusta, rohkea, rotuisin?
Lienet suurtaki sukua,
isoa isän aloa.

여인

네게 침을 뱉으리라
네 썰매에서 네게 침을 뱉으리라!
네 털가죽은 차갑고
네 썰매는 어둠과 함께하리라.

합창단

푸른 양말을 신은
칼레르보 가문의 청년 콜레르보,
여인을 썰매 안으로 잡아끌어
털가죽 위에 눕히네.
털가죽 아래로 여인을 밀어 넣네.

여인

당장 나를 내려놓아라.
자유를 돌려주어라.
여기는 악마의 목소리, 욕설,
상스러운 말만이 가득하구나.
썰매 바닥을 부수고
썰매를 산산조각 내고 뛰어내리리라.
이 끔찍한 썰매를 산산조각 내고 말리라!

합창단

푸른 양말을 신은,
칼레르보 가문의 청년 콜레르보,
숨겨 놓았던 상자를 여네.
그림이 그려진 뚜껑을 열어
은화를 보여주네.
가장 좋은 천을 펼치고
금실로 수놓은 양말을 펼치고
은으로 장식된 허리띠를 보여주네.

고급 천이 그녀를 유혹하네.
은화가 그녀를 신부로 만드네.
은장식이 여인을 무너뜨리고
금은보화가 여인을 삼켜버리네.

여인

당신에 대해 말해보요.
어느 용감한 가문의 자손인가요?
위대한 조상을 둔
고결한 가문의 자손으로 보여요.

Kullervo

En ole sukua suurta,
enkä suurta enkä pientä,
olen kerran keskimmäistä:
Kalervon katala poika,
tuhma poika tuiretuinen,
lapsi kehjo keiretyinen.
Vaan sano oma sukusi,
oma rohkea rotusi,
jos olet sukua suurta,
isoa isän aloa!

Sisar

En ole sukua suurta,
enkä suurta enkä pientä,
olen kerran keskimmäistä:
Kalervon katala tyttö,
tyhjä tyttö tuiretuinen,
lapsi kehjo keiretyinen.

Ennen lasna ollessani
emon ehtoisen eloilla,
läksin marjahan metsälle,
alle vaaran vaapukkahan.
Poimin maalta mansikoita,
alta vaaran vaapukoita;
poimin päivän, yön lepäsin.
Poimin päivän, poimin toisen;
päivälläpä kolmannella,
en tiennyt kotihin tietä:
tiehyt metsähän veteli,
ura saatteli salolle.

Siinä istuin, jotta itkin.
Itkin päivän jotta toisen;
päivänäpä kolmantena,
nousin suurelle mäelle,
korkealle kukkulalle.
Tuossa huusin, hoilaelin.
salot vastahan saneli,
kankahat kajahtelivat:
"Elä huua, hullu tyttö,
elä, mieletöin, melua!
ei se kuulu kumminkana,
ei kuulu kotihin huuto!"

클레르보

아니오. 우리 가문은 위대하지 않소.
훌륭하지도 않고 미천하지도 않소.
그저 그런 가문,
칼레르보의 불행한 아들,
어리석고 미련한 아들,
쓸모없는 아이라오.
당신의 가족에 대해 알려주시오.
어느 용감한 가문의 자손이오?
위대한 조상을 둔
고결한 가문의 자손으로 보이오!

여인

아니오. 우리 가문은 위대하지 않아요.
훌륭하지도 않고 미천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런 가문,
칼레르보의 불행한 딸,
어리석고 미련한 딸,
쓸모없는 아이예요.

어렸을 때는
다정한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숲에서 열매를 따고,
뜰에서 딸기를 따고,
산에서 산딸기를 따고 다녔어요.
낮에는 열매를 따고 밤에는 쉬었어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그리고 아마도 셋째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솔길은 숲으로 나를 이끌었어요.

숲에서 울었어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울었어요.
셋째 날, 높은 산에 올랐어요.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 소리쳤어요.
숲이 대답했어요.
"소리 지르지 말아라.
정신 나간 소녀여,
소리 지르지 말아라.
이해심 없는 소녀여,
네 말을 들을 이는 아무도 없다!
네 집까지 들리지 않는다!"

Päivän päästä kolmen, neljän,
viien, kuuen, viimeistäki
kohennihin kuolemahan
heitihin katoamahan;
Enkä kuollut kuitenkin,
en mä kalkinen kaonnut!

Oisin kuollut, kurja raukka,
oisin katkennut katala.
Äsken tuosta toisna vuonna,
kohta kolmanna kesänä
oisin heinäna helynnyt,
kukoistellut kukkapäänä,
maassa marjana hyvänä,
punaisena puolukkana,
nämät kummat kuulematta,
haikeat havaitsematta.

Kullervo

Voi, poloinen, päiviäni,
voipa, kurja, kummiani,
voi kun pi'in sisarueni,
turmelin emoni tuoman!
Voi isoni, voi emoni,
voi on valta vanhempani!
Minnekä minua loitte,
kunne kannoitte katalan?
Parempi olisin ollut
syntymättä, kasvamatta,
ilmahan sikeämättä,
maalle tälle täytymättä;
eikä surma suorin tehnyt,
tauti oike'in osannut,
kun ei tappanut minua,
kaottanut kaksioisnä.

IV. Kullervon sotaanlähtö

V Kullervon sotaanlähtö

Kuoro

Kullervo, Kalervon poika,
otti koiransa keralle,
läksi tietä telkkimähän,
korpehen kohoamahan;
Kävi matkoa vähäsen,
astui tietä pikkaraisen,
tuli tuolle saarekselle,
tuolle paikalle tapahtui,
kuss'oli piian pillannunna,
turmellut emonsa tuoman.

셋째 날, 넷째 날,
이후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목숨을 던지려고 했지만
저는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없었어요!

그때 내가 비참하게 죽었더라면
가연은 내가 죽고 부서졌다면,
두 번째 해가 지나
어쩌면 세 번째 해 여름,
풀처럼 바람에 흔들리고
꽃봉오리처럼 흔들렸을 텐데,
들판의 맛있는 열매
진홍색 링곤베리가 되었더라면,
이 공포를 듣지 못하고
이 슬픔을 몰랐을 텐데.

콜레르보

오 슬픈 하루, 불행하구나
오 슬프구나 우리 가족,
나의 누이여,
어머니의 아이를 유린했구나.
오 슬프구나 아버지, 어머니.
오 슬프구나 늙은 나의 부모!
당신은 왜 저를 키우셨나요?
왜 저를 이리 비참하게 키우셨나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자라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숨을 쉬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나왔을 텐데.
죽음도 날 피해 갔고,
질병도 날 피해 갔다.
무엇도 나를 죽이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들 후 나 자신을 파괴하리라.

IV. 출정하는 콜레르보

V. 콜레르보의 죽음

합창단

칼레르보 가문의 청년 콜레르보,
검은 개를 데리고
숲길로 들어가네.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숲 끝에 이르자
여기가 어디인지 눈치챘다네.
그가 여인을 유혹한 곳,
어머니의 딸이 명예를 잃은 곳.

Siin'itki ihana nurmi,
aho armahin valitti,
nuoret heinät hellitteli,
kuikutti kukat kanervan
tuota piian pillamusta,
emon tuoman turmellusta,
eikä nousnut nuori heinä,
kasvanut kanervan kukka,
ylennyt sijalla sillä,
tuolla paikalla pahalla,
k Kuss'oli piian pillannunna,
emon tuoman turmellunna.

Kullervo, Kalervon poika,
tempasi terävän miekan,
katselevi, kääntelevi,
kyselevi, tieteleivi;
Kysyi mieltä miekaltansa,
tokko tuon tekisi mieli,
syöä syyllistä lihoa,
viallista verta juoa.

Miekka mietti miehen mielen,
arvasi uron pakinan,
vastasi sanalla tuolla:
"Miks'en söisi mielelläni,
söisi syyllistä lihoa,
viallista verta joisi?
Syön lihoa syyttömänki,
juon verta viattomanki."

Kullervo, Kalervon poika,
sinisukka äijön lapsi,
pään on peltohon sysäsi,
perän painoi kankahasen,
kären käänti rintahansa,
itse iskihe kärelle,
siihen surmansa sukusi,
kuolemansa kohtaeli.

Se oli surma nuoren miehen,
kuolo Kullervo urohon,
loppu ainakin urosta,
kuolema kovaosaista.

부드러운 잔디가 울고
아름다운 대지가 탄식하고
어린 풀이 개탄하고
칼루나 꽃이 슬퍼하네.
무너진 여인과
무너진 어머니의 딸을 위해
그 자리에는
어린 풀이 자라지 않고,
칼루나 꽃이 자라지 않네.
사악한 일이 벌어진 곳,
그가 여인을 유혹한 곳,
어머니의 딸이 명예를 잃은 곳.

칼레르보 가문의 청년 콜레르보,
날카로운 검을 움켜쥐네.
날카로운 검을 올려다보네.
날카로운 검에게 묻네.
나를 죽일 생각인가?
이 죄 많은 몸을 삼키고
사악한 피를 마실 텐가?

날카로운 검은 생각에 잠기고
대답하네.
"그대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로 가득 찬 살을 삼키고
사악한 피를 마시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죄 없는 살도 먹고,
죄 없는 피도 먹는 검."

푸른 양말을 신은
칼레르보 가문의 청년 콜레르보,
칼자루를 땅에 단단히 박고
칼자루를 황야에 단단히 박고
가슴에 칼 끝을 겨누고
스스로를 던지네.
그토록 찾던 죽음이 찾아와
그를 파괴하네.

청년이 사라지고
영웅 콜레르보가 사라지고
영웅의 삶도 사라졌네.
불행한 영웅은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네.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등 세계 최정상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고, 2022년 제9대 음악감독으로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자가 취임하며 한국을 넘어 세계 정상의 교향악단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공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함으로써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말러 <교향곡 제9번> 실황 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코로나 시대에도 KBS의 온라인 4채널을 모두 동원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클래식 음악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오픈하며 고품격 음악콘텐츠의 무료 제공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클래식 음악의 디지털콘텐츠 허브로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사장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한창록
피에타리 잉키넨

단원

제1바이올린

약장* 부약장** 수석+ 부수석**
최병호** 반선경+ 유신혜**

제2바이올린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운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권민지+ 임정연**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황선민 안지현 박서현 최여은

비올라

진덕+ 한넬리**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첼로

김우진+ 윤여훈**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김희연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더블베이스

이창형+ 김남균** 안수현** 이도용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플루트

김아란+ 김태경**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김종아** 윤혜원 조성호

클라리넷

박진오+ 손한요** 박한

바순

박준태+ 고주환**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종진**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트럼펫

남관모+ 김주원**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이윤호** 윤지연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타악기

장세나 오지에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객원단원

악장

김소영*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오케스트라 제1바이올린 단원)

제1바이올린

신예은

제2바이올린

박현우 고찬미

비올라

김민영

첼로

오소연 이하은

더블베이스

정하나

클라리넷

남유경

호른

김현준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미래사업추진단 단장 손대승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공연지원파트)

팀장 손유리 차장 이한신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악기담당) 단원 유재식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조병근 대리 이미라 주임 최혜정 사원 임상아 서영재 이부윤

경영관리팀

팀장 강길호 차장 유정의 유연철 과장 박연선 주임 박태균

KBS교향악단 후원회 소개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향악단으로 발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 다채로운 행사 참여의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사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후원금액	기간	등급별 혜택 (이하 등급 전체 혜택 포함)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 동반 (2인 항공포함 교통/숙박 제공)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 전용 혜택)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VIP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연 1회 2인 교통, 숙박 제공)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주차권 증정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 교향악단 투어 (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공통혜택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 및 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 공연장 리허설 참관 초청 (에듀드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 명단 게재 (에듀드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o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관련문의 (재)KBS교향악단 전화 | 02-6099-7407 / 010-4932-3061

후원회원 온라인 가입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백정호 (주)동성케미컬 회장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상임이사	한창록 KBS교향악단 사장		
이사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 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진학 유진기업(주) 사업총괄 사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영희 KBS 시청자센터장 조현아 KBS 예능센터장 최봉현 KBS 라디오센터장		

KBS교향악단 후원회

Concerto	김영호 일산방직(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앤에프 회장 백정호 (주)동성케미컬 회장 / KBS교향악단 이사장
Cantata	고중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구자용 (주)E1 회장 김명환 (주)덕신하우징 회장 민성우 에스엠글로벌코리아(주) 대표이사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옥 전)KBS교향악단 사장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이윤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허승현 PHA 사장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이충희 (주)듀오 회장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주) 사업총괄 사장 최명배 (주)엑시콘 사장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대표이사
Nocturne	김동진 금양식품(주)대표 (주)하어스엠
Prelude	김도영 변호사 김승중 전)KBS감사 김진오 변호사 박상현 (주)발렉스 대표이사 유수엽 유순신 (주)유엔파트너즈 대표 윤중호 쉐리코리아 컴퍼니(유) 대표이사 이지민 영인과학(주) 대표이사

ONE OF





실크침대

A KIND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KBS교향악단



www.kbssymphony.org



[@kbssymphonyorchestra](https://www.instagram.com/kbssymphonyorchestra)



[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https://www.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KBS교향악단



[facebook.com/kbssymphony](https://www.facebook.com/kbssymphony)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혹은 'kbssforever')